

전과 7범이 구의회 의장 후보

광주·전남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잠음

광주·전남지역의 후반기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지방의원들이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인 채 '자리 나눠먹기' 구대 재현은 물론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 전과 7범인 의원을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 논란=광산구의회 민주당 의장 후보로 박삼용 의원을 선출했다.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지난 4·11 총선 이전 민주당 통합과정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자질과 의정활동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도 의장으로 적합한 인물은 아니다"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박삼용 의원에 대해 반발하며 의장단 선출에 독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박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민주당 차경섭·전양복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전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다. 앞서 광산지역 모 국회의원은 구의회 민주당 경선에 앞서 지역구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적합한 인물이 의장 후보가 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 부의장 당선 논란 확산=불법 조직 선거에 연루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동구의회 남순심(여·56) 의원의 하반기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퇴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하반기 부의장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원을 선출하는 후안무치한 동구의회 행태에 차마 할 말이 없다"며 "동구의회는 즉각 동구민에게 사죄하고 의장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지부는 이어 "남 의원은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면서 부의장에 출마하고 동료 의원들 또한 당선시켜주마고 또다시 동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게 됐다"며 "남 의원도 주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남 의원과 함께 불법 조직선거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구의회 조종진 부의장은 이날 의원직을 사퇴했다. 조 부의장은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일로 죄송스러운 마

음을 금할 수 없어 의원직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열린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안병강 의원과 무소속 김동현 의원은 남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된 사실을 알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본 회의장 명패를 떼 본회의장을 떠났다.

김동현 의원은 "동구의회는 경우 다른 의회와 달리 의장단 선거를 교황 선출방식으로 진행, 남 의원이 부의장에 출마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에 부보직 사퇴를 요구할 수 없었다"며 "검표 당시 남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에게 부끄러워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 회의장 내 명패를 들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원구성 비공개 빈축=목포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샀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예상대로 민주당 경

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배준범 현 의장을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부의장도 통합진보당 허정민 의원을 재선출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전반기와 동일하게 나눠 가졌다.

하지만 의장단 선거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은 의미없는 채 밀실 담합 정치의 전형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의장단 선거는 의원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교황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없애고 후보 검증을 위해 '후보 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기로 한 조례마저도 무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도 13명의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를 희망해 의장이 작권으로 위원회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5명을 타 위원회에 배치, 이의 제기를 무시한 채 '날치기' 통과시켜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임수정·이병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

2012광주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병헌과 임수정이 3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강운대 광주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비엔날레는 '라운드 테이블'이란 주제로 오는 9월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 전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한국 모더니즘의 역사를 구상과 추상 회화로 나눠 살펴보는 '두 개의 모더니즘'과 '진(進), 통(通)'(6월9일~8월19일)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의 큰 흐름 속에서 남도 미술이 차지하는 위상을 조명하는 자리로, 한국 현대 미술 대표작가들인 79명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일궈낸 작가들의 작품을 주 2회 소개한다.



노오란 추억이 영그는 남도의 가을

남도 가을 풍경은 한편의 서정시다. 맑은 가을 하늘에 노랑·빨강으로 단풍 든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웅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에는 넉넉한 남도의 가을이 담겨 있다. 고향 길을 걸을 때마다 만나던 흠내음 가득한 시골 풍경에는 사람 냄새가 나고 애잔하면서도 아릿한 추억도 전해진다. 오지호의 '추경'은 한국 남도의 자연을 묘사한 대표작이다. 오 화백은 밝고 맑은 한국의 색채를 중심으로 한 감각적인 화풍으로 풍부한 빛과 자연에 대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았다. 오 화백은 화순 출신으로 평생 빛을 바탕으로 자연의 생명력이 한껏 발휘되는 우리나라 환경을 화폭에 담아 '빛을 그리 화가'로 불린다. 대한민국에 예술인 학술회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박준영 전남지사 대선행보 본격화

서울·광주에 선거사무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서울과 광주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지도 조

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3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2개 층의 선거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사무실은 김한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대표 경선 당시 사용했던 곳으로, 박 지사는 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세 물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 상무지구에 50여평 규모의 사무실도 마련하고 호남권 선거 캠프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선까지는 변수가 많은 사무실 계약 기간을 특별하게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박 지사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지사가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정확히 파악해 향후 대선 행보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나 뽑아준 국민들 맞아?!

막가는 광주시의원들

일부 초선 "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 내놔라"

민주통합당이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마무리했지만, 상당한 경선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의장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의회 내 주도권을 빼앗긴 일부 초선 그룹들이 후반기 원구성에 앞서 차기 의장후보에게 부의장 자리와 상임위원장 세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광주시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뽑힌 조호근 의원을 경선에서 지지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교육위원장 포함해 5명)을 선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선에서 조 의원을 지지한 9명 중 5~6명이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일부 초선 그룹은 신 주류 측

에 의장단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을 의장으로 배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신주류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의회 상반기 윤봉기 의장을 옹립하며 의회 내 주도권을 잡았던 일부 초선 그룹도 의장 경선 이후 회동을 갖고 신 주류 측에 하반기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3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의장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던 일부 초선 그룹이 '의회 내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개개인의 감투 욕심과 함께 의회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꽤거리'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신 주류 측에서도 자리 양보는 쉽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분간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신 주류와 비 주류 측 의원들 간 갈등이 예상된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http: www.joytour.kr
광주광역시 동구 남로57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 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국내 여행

목포-제주도 실속 ₩109,000~ 품격 ₩139,000~
장흥-제주도 실속 ₩149,000~ 품격 ₩159,000~
목포+무안공항 ₩139,000~
광주-제주도 ₩259,000~
울릉도 2박 3일 ₩325,000~ 홍도, 흑산도 1박 2일 ₩294,000~ 1박 2일 ₩189,000~

미주

미서부 3대캐년 태평양 해안 완전일주 9일 ₩1,990,000~
미동부/캐나다 동부(퀘벡), 나이아가라 일주 9일 ₩2,590,000~
미서부(3대캐년)/미동부(나이아가라)완전일주 13일 ₩3,190,000~

일본 여행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 키리쿠슈 4일 ₩599,000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 4일 ₩439,000
구중산 빌라형동나무온도 (출발확정) 4일 ₩299,000
청단품이 아름다운 유후단계 등반 4일 ₩329,000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텔버스 4일 ₩489,000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즐기~!! ₩899,000
[실속]오사카, 교토, 고베 3일 ₩699,000
북해도 무안전세기!!! (8/9, 13, 16)
북해도 자연, 미각, 온천 쾌찬 4일 ₩1,650,000~
북해도 자연, 미각, 온천 쾌찬 3일 ₩1,590,000~

유럽 여행

서유럽 3국 8일 ₩3,190,000~
서유럽 5국 10일 ₩3,490,000~
시드니 완전 일주 6일 ₩1,670,000~
호주/뉴질랜드 북섬 7일 ₩1,970,000~
[품격]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2,570,000~
[품격]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970,000~

동남아 최고의 인기 방콕/파타야 무안 전세기!!

3박4일 방콕 파타야 ₩799,000~
3박5일 방콕 파타야 ₩799,000~
베트남 북부/캄보디아 6일 ₩669,000~ ₩929,000~
베트남 중부-다낭 5일 ₩849,000~ ₩699,000~
베트남 중부-다낭 6일 ₩899,000~ ₩749,000~
마카오/홍콩 무안 마카오 직항 전세기
7/28~ 8/15 [수(2박4일)/토(3박5일)] 출발
7/14 ~ 8/25 [화(4박5일)/토(3박4일)] 출발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경쟁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 공동조각: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별 가입(예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무료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보험(단, 기사/가이드 봉사, 선택관광 각별히 비보험 별도) * 경비보험: 여행, 관광, 항공, 화재, 전염병/전역 * 최고수출입: 상황에 따라 다름 * 상근 요원은 한일 항공요구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예약비)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